

김정일 체제기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 (1994~2010)*

이현중**

1. 들어가며
2. 군사영화의 관습적 적대자
3. 동시대 정치적 갈등 관계의 표출: 핵무기와 북한 제재
4. 자기 결함을 감추기 위한 악의 설정
5. 나오며

국문초록

1990년대 북한은 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소련의 붕괴로 냉전 체제가 해체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었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며 체제 위기를 맞는다. 후계자 김정일 체제도 결속을 유도했지만, 수해와 가뭄에 따른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기가 왔고, 북핵 문제로 인해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며 그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 조치로 경제난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영화에 반영되었으며, 최악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사 선행의 선군정치의 교시를 담은 선군영화들이 제작되었다. 군대와 군 생활을 담은 선군영화의 특성 상 과거의 조국해방전쟁이 소환되기도 했고 군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9791)

**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조교수

의 적대적 표상은 미국으로 수렴되었다. 당시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을 살펴보는 것은 적대적 표상의 대척점에서 당시 북한이 지향하던 체제의 모습을 영화적 선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 시기 북한영화가 미국을 표상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발견된다. 1990년대 이전의 북한영화들에서 미국을 폭력성이 강조된 캐릭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악인의 이미지로 만들었던 것에 반해 이 시기 영화들은 수령 형상화와 내부 결속을 위한 장치로 미국을 소모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위기를 만든 원흉으로서 미국이 설정된다. 그러한 이유로 이 시기 북한영화들에서 미국의 표상은 직접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기 보다는 배경에 위치한 악으로 역할을 한다. 전쟁영화에서도 직접 캐릭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닌 자료화면으로 노출되고, 경제난을 다룬 영화에서도 고난의 원인으로 존재하지만 직접 인물 간의 서사에 개입하는 장치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체제 결속을 위한 선전 목적이라도 이 시기 영화들에서는 미국 표상이 지니는 다른 방향성이 발견되는 것을 뜻한다. 과거처럼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를 결속한다는 목적보다는 김정일이라는 새 지도자를 선전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유도하고 대중을 교양하는 것이다. 그 장치로 미국이 관습적 적으로 소모되는 경향을 영화적 표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주제어: 북한영화, 북한, 미국 표상, 김정일, 선군영화, 북핵, 6·25전쟁, 내가 본 나라)

1. 들어가며

북한은 1990년대를 불안한 환경에서 마주해야 했다. 동유럽 사회주의

와 소련 연방이 몰락하며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홀로 남아있는 형상이 되었다. 그 유일한 우호국 중국마저도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고 한중수교를 맺는 등 북한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1993년에는 자주권을 위한 자위적 조치를 이유로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하며, 북미관계·남북관계가 상당한 긴장상태에 이르렀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한 시기에 실시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이 내정간섭이고, IAEA 사찰이 미국의 정탐행위와 같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북한이 국제 정세에서 고립된 상황과 경색된 북미관계를 핵카드를 통해 돌파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있었다. 실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이 대화에 나서며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는 대신, 경수로 원조와 북미 간의 정치·경제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합의되기에 이른다. 어쨌든 미국을 대화로 끌어냈고,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뤄진 것이다.

어느 정도 정치 상황이 안정화 되어 간다고 여겨졌지만, 1994년 북한의 최고 권력자 김일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며 북한 사회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50여 년의 긴 시간동안 집권을 한 국가 지도자의 사망, 더군다나 김일성의 유일체제로 조직된 북한 체제를 고려할 때 그의 죽음은 국가의 위기로 여겨질 만큼 북한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북한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김정일 후계 체제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었기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계승한다는 구호 하에 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1972년 채택했던 '사회주의 헌법'을 1992년 개정했다. 헌법 개정의 배경에는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가 있었지만, 개정헌법은 무엇보다 '국방위원회 관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해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군사규율의 강화를 명문화함으로써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김정일의 군부장악을 통한 세습체제를 확고히 하였다.¹⁾

국가 주도의 선전영화로서의 성격이 강한 북한영화의 특성상 영화에도 이러한 정치 상황은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의 사망 이후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영화들이 제작되었고, 다만 그 대상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바뀌었을 뿐 유일지배체제를 선전하는 영화가 북한 영화의 주된 기조였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70년대부터 북한영화는 김정일의 지배 혹은 지도 아래 있었고, 1990년대에 김정일은 무용, 미술, 문학 등을 아우르는 주체문학예술이론을 완성하는 등 북한의 문화 예술 분야를 이전 시기부터 이끌고 있었다. 다만 김일성의 사망 이후 자신의 유일체제가 공식화되며 체제 안정을 위해 스스로가 강력한 선전물이라 평가한 영화를 더 전면에 내세웠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영화 제작에도 속도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사실 김일성 사망 이후 유훈통치기간 동안 북한 사회는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김정일 체제의 안정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경제난, 식량난의 문제가 심각했다. 국제적 고립으로 인한 경제난과,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이 이어지는 유래 없는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난으로 인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쳤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벼랑 끝 전술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며 대북제재가 심화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러한 위기의 해결은 선군정치로 수렴되었다.

이 위대한 정치는 최악의 역경 속에서 사회주의 보루를 지키고 강성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했다. 현실은 선군정치야말

1) 고태우, 『북한사 다이제스트100』, 가람기획, 2015, 353~356쪽.

로 현대 사회주의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불패의 정치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²⁾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 군 중시 사상을 구현해 가는 선군정치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노선이 군사 선행의 선군정치로 수렴된다는 것은 그 반대편의 적이 자연스레 미국으로 수렴되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을 살펴보면, 그 적대적 표상의 대척점에서 당시 북한 당국이 지향하던 체제의 모습을 영화적 선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로 이어지는 이 시기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은 조국해방전쟁³⁾과 이전 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일종의 관습적 악인의 표상이 존재함과 동시에, 국제 정세 속에서 강대국 미국을 인정하며 미국만큼 그에 대적하는 북한도 강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해석되는데 이러한 점들이 선군정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북한영화에 대한 대표적 통시적 연구인 민병욱, 이명자, 서정남, 최척호의 연구 등은⁴⁾ 대부분 1990년대 김일성 유일체제기까지의 북한영화나 해당 연구들의 집필 시기인 2000년대 초중반까지의 북한영화를 다뤄 김정일 체제기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그 외 시대적 구분으로 김정일 체제기의 북한영화를 다루는 연구들은 해당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⁵⁾,

2)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우리 당의 선군정치』,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445쪽.

3) 6·25전쟁이 공식명칭이지만, 미국에 대한 적대적 관점을 드러내는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되는 지점에서는 ‘조국해방전쟁’을 혼용해서 사용함을 밝힌다.

4) 민병욱, 『북한영화의 역사적 이해』, 도서출판 역락, 2005; 이명자, 『북한영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서정남, 『서정남의 북한영화 탐사: 이 땅에 존재하는 또 다른 영화 세상, 북한영화를 찾아서』, 생각의나무, 2002; 최척호, 『북한영화사』, 집문당, 2000.

5) 안지영,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정치적 이데올로기 담론⁶⁾, 세대 담론⁷⁾ 등을 담고 있다. 개별적 작품론을 통해 북한영화의 특징과 사회적 함의를 발견하는 연구들도 존재하는데,⁸⁾ 특히 <내가 본 나라>의 텍스트 연구를 통해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연구들은⁹⁾ 북미관계가 배경이 되는 텍스트 특성 상 본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다. 김정일 체제기를 포괄하는 해외 연구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연구는 요하네스 쇼네어 Johannes Schönherr의 연구인데,¹⁰⁾ 그는 김정일 체제기를 김일성 사망과 대기근기, 햇볕정책기(sunshine years), 햇볕정책 이후 시기로 나누어 영화를 분석한다. 해외 연구이기에 미국과 연관된 시각들에 주목하는 요소들을 본 주제와 연관해 살펴볼 수 있다. 북한영화의 미국표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볼 때는 이현중의 선행연구¹¹⁾가 연속성을 갖

- 6) 강혜석, 「동원의 기획으로서의 북한 민족주의: 다부작예술영화 <민족의 운명>과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현대북한연구』 20권 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7; 안지영·김화순, 「배제와 포용: 북한영화 및 드라마를 통해 본 '복잡군중' 정책」, 『한민족문화연구』 72호, 한민족문화학회, 2020; 전영선, 「이야기 방식을 통한 북한 체제 정당화 연구: 총서 "불멸의 력사"와 영화 <조선의 별>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3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09.
- 7)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와 청년세대: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68호, 동아연구소, 2015; 안지영·진희관, 「김정일 시기 북한 영화 및 TV드라마로 본 청년의 사회진출 양상과 함의」, 『한국문화기술』 19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15.
- 8) 한승호, 「북한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 연구」, 『아시아영화연구』 2권 2호,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2009; 한승호, 「북한영화 <평양 날파람> 연구」, 『정신문화연구』 33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9) 한승호·고경민, 「북한 영화 속 '핵'의 콘텍스트: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분석」, 『통일인문학』 65호,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김선아, 「북한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시리즈에 나타난 티모스의 영화미학」, 『영상예술연구』 21호, 영상예술학회, 2012.
- 10) Johannes Schönherr, *North Korean Cinema: A history*, McFarland & Company, 2012.
- 11) 이현중, 「북한 전쟁영화와 기록영화 속 미국(군) 표상 연구: 6·25 전쟁과 그 전후(前後) 시기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84호, 한국영화학회, 2020; 이현중, 「1960년대 북한영화 속 미국 표상 연구」, 『영화연구』 87호, 한국영화학회, 2021; 이현중, 「김일

는다.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북한영화에 드러나는 미국 표상을 분석하는 이 연구들은 시기에 따라 표현양식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지만 북한영화가 미국을 적대적 표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당연하게 귀결한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김정일 체제기의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이 논문도 이전 시대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과 비교해 적대적 표상으로 환원되는 주제적 의미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김일성의 사망과 북핵문제 등 해당 시기의 정치적 맥락이 어떻게 북한영화에서 재현되고 표상되는 미국의 이미지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연구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다소 구체적 주제를 다루다보니 이 연구는 의미 있는 미국 표상이 등장하는 영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명령만 내리시라>, <폭발물처리대원>, <자강도 사람들>, <생명선>, <내가 본 나라> 2부와 3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김정일 체제기라는 폭넓은 시기를 몇 편의 영화를 통해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해당 시기에 군사영화만 존재했던 것 또한 아니다. 이 시기의 북한영화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봤듯 청년영화나 과학영화, 강성대국건설과 실리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선군영화들이 주된 경향을 이루기도 한다. 다만 이 논문이 북한영화에 드러나는 미국의 영화적 '표상'을 분석하는 연구이니만큼 미국 표상이 외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나거나 내적 표상이라도 그 함의가 영화의 주요 인상을 만드는 영화들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내가 본 나라> 시리즈의 경우는 김정일이 직접 제작 지시를 내리고 당대 북한영화의 모범적 표본으로 강조할 만큼 당시의 북한의 대외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상징성

성 유일체제기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 연구, 『영화연구』 90호, 한국영화학회, 2021.

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다. 이에 연구 주제와 관련해 주요 작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그 외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화들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하고자 한다.

2. 군사영화의 관습적 적대자

6·25전쟁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Korean War’로 불린다.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지역적 의미와 함께 전쟁의 두 주체인 남한과 북한의 분단전쟁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에 반해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용어로 6·25전쟁을 부르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을 민족과 조국의 해방을 위한 항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참전으로 전세가 뒤집히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이러한 개념이 굳어진 것을 볼 때 조국 해방을 방해하는, 즉 북한에게 조국과 민족을 억압하는 대상은 미국이 된다. 이는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만이 예외적으로 6·25전쟁을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는 의미의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으로 부르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정권은 한국전쟁 당시 반미구군 논리와 반미사상을 가장 중요한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로 활용함으로써 인민을 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반미구국의 논리는 북한 문학예술의 창작방식을 형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¹²⁾ 전쟁 이후에도 반미사상은 북한정권의 유지와 체제 결속을 위해 전면내세워지는

12) 안지영,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87쪽.

사상이었으며, 영화를 포함한 예술 창작에도 지침과 같이 작용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현재 자신의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대내적으로 선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근원적 적국으로 설정하기 위해 조국해방전쟁으로부터 그 바탕을 찾는다.

시점(視點)을 바꿔 말하자면 미국은 과거 역사와 현재의 적대국으로서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위해 이용되는 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을 계속 재현하고 인민들에게 상기시킨다. 그 재현의 주된 대중적 수단은 영화이다. 북한영화에서 조국해방전쟁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그 서사에서 미국은 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반복과 선전은 북한 정권의 체제와 내부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더군다나 김정일 체제는 군을 가장 우선에 두는 선군정치를 표방했다. '김정일은 권력구조로서 기존의 수령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에 자신의 '선군사상'을 더하여 김정일 '선군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대가 당의 권위를 압도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¹³⁾ 선군정치는 사상이기도 하지만 정책으로서 예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군영화의 창작으로 이어졌다. 모든 상황에 있어 군을 우선에 두고 군의 이야기를 하는 선군영화이기에, 표면적으로 군의 적대적 존재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그 적은 당연히 주로 미국으로 설정되었다. 6·25전쟁을 다루는 시대극에서도, 동시대의 군을 배경으로 하는 현대극에서도 직간접으로 군의 적대자는 미국과 미군이 역할을 하면서 이전 시대부터 이어지는 적대국 미국의 표상이 이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김일성 사망 이후 유헌정치 때에도, 김정일 유일체제가 확립되고 선군정치가 전면에서 드

13)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한울, 2010, 671쪽.

러나는 시기에는 더욱더 전쟁영화가 계속 만들어졌다.

『조선중앙년감』을 보면 1994년과 1995년부터 2·8예술영화촬영소 작품을 부쩍 많이 열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선군혁명영화의 증가로 군대나 전쟁, 통일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주로 찍는 2·8예술영화촬영소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¹⁴⁾ 1994년은 김일성이 사망한 해이고, 김정일이 자신이 집권자임을 공식화하는 때는 1998년이다. 그 사이인 유훈 통치 기간에도 군대, 전쟁 소재 영화가 많아졌다는 것은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체제 불안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내부를 결속하려는 목적이 바탕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선군정치가 본격화되면서는 제국주의의 군사적 침략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하였기 때문에, 선군영화를 비롯해 전쟁 소재 영화들에서 북한에게 제국주의의 표상으로 등치되는 미국이 적대적 표상으로 이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전쟁 소재, 군대 소재 영화로는 <명령만 내리시라>(1996), <비행사 길영조>(1998), <민족과 운명>(1999), <살아 있는 령혼들>(2000), <녀성승무조원들>(2000), <술매령에 핀 꽃>(2001), <복무의 길>(2001), <철령의 대대장>(2003), <잊지 못할 백송리>(2003), <녀병사의 수기>(2003), <순간을 기다려>(2004), <그들은 평범한 전사들이였다>(2005), <지지않는 노을>(2005), <젊은 려단장>(2005), <강호영>(2007), <군항의 부름소리>(2008), <우리를 지켜보라>(2008), <북두 칠성>(2009), <형제의 정>(2010), <폭발물처리대원>(2012) 등이 있다.

국제 정세나 정치 상황에 따라 적대적 국가도 우호국으로 성격이 변할 수도 있는 것처럼 타국에 대한 관점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최소한 북한에서 대내적으로 선전되는 미국의 적대감은 그렇

14) 이명자, 『북한영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89쪽.

지 않았다. 다소 일반화시켜 말하자면, 북한영화에서 미국의 표상은 1950년대 이후 관습적으로 적대시되어 표출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북한의 정치 이념상 전쟁의 주적으로 미국이 삼아지는 전쟁영화에서는 그 적대감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이 시기 전쟁영화들에서 표면적으로 표출되는 미국의 이미지나 존재감은 이전의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위의 영화들에서 미군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영화는 그리 많지 않다. 전쟁의 적대국으로서 미국이 '설정'된 것은 이전의 영화들과 다르지 않지만, 그 영화적 이미지가 주는 표상이 다르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전 영화들에서는 직접적으로 미군의 표상을 최대한 악랄하게 구체화하려는 것에 집중했다. “반미투쟁 주제를 위해 미국에는 지난 북한영화들에서 재현된 폭압적 침략자의 표상에 더해 이기적이고 악랄한 지배자의 표상이 덧입혀진다.”¹⁵⁾ 이러한 북한영화들에서 미국의 표상은 국가로서 적대국일 뿐 아니라 개인으로서 악랄한 악인의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영화에서 미군은 무서운 표정으로 여성과 아이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는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월북미군 등을 활용해 가시적으로 그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기도 했다. 미군 개인이 행하는 폭력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악독함으로 연결되며 대중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선전 효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이전의 북한 전쟁영화들이 미국의 표상을 '구체화'하려 시도한 것에 반해, 이 시기의 북한 전쟁영화들에서는 이전처럼 직접적 표상을 담은 구체적 이미지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물론 이것이 북한영화에서 미국의 역할과 의미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북한 전쟁영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본질적인 적국인 것은 다름없지만, 그것이 재

15) 이현중, 「1960년대 북한영화 속 미국 표상 연구」, 『영화연구』 87호, 한국영화학회, 2021, 22쪽.

현되는 영화적 표상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나열한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북한 전쟁영화들에서는 미군이 비중 있는 안tagon리스트로 등장하는 영화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화는 미국의 직접적 표상으로 적대감을 끌어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선군정치 지침대로 국가와 생활에 있어 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지도자인 김정일의 우상화, 군 영웅을 형상화하는 것과 같이 통치 이념과 프로tagon리스트인 영웅적 인물에 집중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 영화들에서 미국은 ‘조국해방전쟁’부터 이어진 북한의 전쟁과 전시 상황에 설정된 적으로 위치할 뿐이다.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 표상으로 형상화되지 않고, 대사 등을 통해 적의 존재가 인식되도록 하거나 자료화면 등을 통해 폭격과 전투, 해상 교전 등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6·25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 <명령만 내리시라>의 경우 미국이 이미지로서 표상되는 것은 미군의 대형 순양함과 경비정 등이 등장하는 자료화면들 뿐 개인으로서 미군은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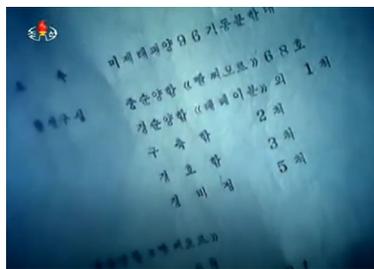
<그림 1> <명령만 내리시라> 속 미군



<그림 2> <명령만 내리시라> 속 미군

하지만 전쟁영화에서 인물의 영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력한 적군의 존재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영화 안에서 불리며 그 악행이 설명된다. 이를 위해 전투 장면이 아닌 신(scene)들에서 미군을 표현하

는 방법은 대사나 텍스트를 통해 그 적대적 존재를 반복해서 알리는 방식을 취한다. 아래의 <그림3>처럼 작전문서를 통해 강력한 미군 부대의 규모를 인식시키거나, <그림4>처럼 북한 경비정에 적힌 호전적 문구를 통해 미군에 대항해 전투를 벌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3> <명령만 내리시라> 미군 표현 <그림 4> <명령만 내리시라> 미군 표현

한편으로 1990년대는 전쟁이 발발한 지 40여 년 이상이 지난 뒤이기에 북한에게도 6·25전쟁이 과거의 역사로서 존재하고, 영화에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것이 그런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명령만 내리시라>와 같은 당시의 북한 전쟁영화들이 강조하는 것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향한 충성심이기에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수령을 위해 결사 항전하는 영웅적 인물을 노출하는데 서사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미국은 이미 관습적으로 인지된 적국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폭발물처리대원>에서도 미군이 비중 있는 안타고니스트나 직접적 이미지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 영화는 6·25전쟁 때 미군이 설치한 지뢰나 투하한 폭발물을 처리하는 폭발물처리대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화에서 대원들이 현재를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기로 인식하자 부대장은 아직 미국의 위협이 끝난 것이 아

님을 ‘조국해방전쟁’을 상기시키며 일깨운다. 미군의 영상 이미지는 이때 미군 폭격기의 폭탄 투하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미국은 이 영화를 지배하는 적대적 존재로서 계속해서 상기된다. 영화의 주요 내용인 폭발물 처리 장면들마다 미국은 반복해서 언급되고 인물들은 그때마다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폭발물은 미국을 향한 하나의 은유로서 사용된다. 미군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하는 장면은 전쟁과 불행한 역사의 원인이 미국에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때의 불발탄이 아직 땅속 깊이 숨어 있다는 것은 현재 보이지 않지만 미국의 위협이 아직도 불발탄처럼 숨어있다는 것, 즉 지금도 미국의 침략에 의한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을 표현한다. 직접적 표상으로 영화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폭발물을 통해 기억되는 전쟁으로 적대자 미국의 존재감과 위협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영화에 있어 적대자 미국의 존재는 정치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북한에서 이야기 방식을 통한 교양사업은 인민에 대한 체제 설득의 주요 수단이다. 하나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온갖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논리적 설득보다는 감성적 공감과 경외를 통한 체제전략 수단으로서 이야기의 유용성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¹⁶⁾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이라는 적을 대중적 선전수단이자 영상매체인 영화를 통해 가시화함으로써 체제를 정당화하고 내부 결속을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에 당시의 시대적 측면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체제 위기 상황이라면, 김정일 체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그러한 체제 유지와

16) 전영선, 「이야기 방식을 통한 북한 체제 정당화 연구: 총서 “불멸의 력사”와 영화 〈조선의 별〉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3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09, 174쪽.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외 정세 또한 영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핵 협상과 대북제재 등으로 굴곡이 심했던 때이며, 때문에 대내 여론을 만들기 위한 선전 장치로 이러한 점들이 영화에 나타나는 미국의 표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상당수의 북한 전쟁영화들이 선군정치에 의한 선군혁명영화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군을 중심으로 다루다보니 자연스럽게 주인공인 군인의 희생과 영웅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 대척점에 있는 적 미국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이 이 시기 선군영화, 그 중 전쟁영화의 제작을 늘리고 북한 영화 내부적으로 전쟁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영화에 나타나는 미국의 표상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봤을 때, 사실 이러한 정치적 지점들이 이 시기 북한 전쟁영화에 나타나는 미국 표상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북한의 전쟁영화는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그 안에서 관습적으로 미국을 적대적 존재로 표상하고 그 존재에 대한 적의를 드러낸다. 다만, 이 시기 영화들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그 표상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전의 영화들과 다르게 직접적이지 않으며, 은유적 표현 등으로 북한의 관점에서 미국의 위협성을 드러내는 지점들이 발견된다.

3. 동시대 정치적 갈등 관계의 표출: 핵무기와 북한 제재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적대감을 드러내왔지만, 실제적으로 북한과 미국은 군사, 경제를 비롯해 모든 면에서 경쟁 관계

가 불가능한 조건에 놓여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초강대국인 반면, 북한은 동아시아의 작고 고립된 국가일 뿐이다. 더군다나 김정일이 정권을 이양한 1990년대는 북한의 지원국이던 소련이 무너지며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던 시기이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군사·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미국과의 적대 관계에서 이처럼 열등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 문제였다. 북한은 1993년과 2003년에 NPT 탈퇴를 선언하며 핵협상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을 획득하곤 했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핵협상을 타결하며 에너지 중유 합의와 경수로 제공, 대북 무역 투자제한 부분적 해제 등을 합의한다. 2003년 NPT 탈퇴 선언 후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핵위협을 하자 즉시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협상 끝에 2005년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와 경수로 제공, 5개국의 경제협력 등이 합의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핵카드를 적절히 이용해 왔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클린턴 미대통령의 보장각서는 북한 외교의 승리의 상징으로 이용되었고, 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¹⁷⁾ 2004년 부시가 재선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면서도 제재와 압력만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6자회담을 비롯해 북미 회의를 통해 대화와 협상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는 성명을 발표하곤 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모든 침략무력을 철수시킬 것과,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전인민들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며,

17) 고태우, 『북한사 다이제스트100』, 가람기획, 2015, 359~360쪽.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강조한다' 18)는 2005년의 담화를 보면, 북한이 핵협상을 통해 미국에 대한 강경한 논조를 드러내며 이를 대내 선전수단으로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인민들에게 전달하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자의 위대성에 있다” 19)며 김정일의 정치적 위대함을 강조하는데 북핵과 대미협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북한 입장에서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지만, 군사적·경제적으로 열등한 상황에서 그들이 미국에 승리하였다고 대중에게 선전할 수 있는 가시적 결과물이 핵문제, 핵협상 결과였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동시대의 북핵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 <내가 본 나라>는 흥미로운 텍스트가 된다. 북핵 문제를 대내 강렬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함에 있어 정치적 성명과 담화를 넘어 북한의 주된 사상교양 도구인 영화를 통해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하는데 있어 주로 과거의 6·25전쟁과 전쟁의 상흔 등을 소환했던 것에 반해 이 영화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시대의 국제정세 및 북한과 미국과의 갈등 관계를 다루기에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이라는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이 영화가 장르적으로도 첩보, 정치영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과 연관되기도 한다.

<내가 본 나라>는 총 5부작으로 제작되었는데, 1988년 1부가 공개된 이후 20여 년이 지난 2009년 2,3부, 2010년 4,5부가 제작 및 공개되었다. 때문에 1부와 나머지 후속편들은 상당 부분 다른 내용과 성격을 보인다. 1부는 일본의 북한 연구자 다카하시 미오루가 ‘제 눈으로 보기 전까지

18) 『로동신문』, 2005년 9월 19일.

19) 『조선중앙통신』, 2009년 7월 27일.

믿지 않는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일본의 부정적인 여론을 뒤로 하고 북한에 입국해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을 확인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가 본 나라〉 1부는 타자이자 적대적 관계에 가까운 일본인의 시각으로 객관화시켜 대외적으로 자국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현재 북한의 발전된 모습인 현대식 건물과 최신 의료 시설과 시스템 등을 보여주고, 온화하고 친절한 북한 주민과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부분의 장면을 할애한다. 과거 회상 장면으로 일제 강점기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장르적으로도 드라마에 가까운 성격을 보인다.

반면 2009년부터 공개되는 후속작들에서는 영화의 성격이 다른 면모를 갖춘다. 2부부터는 주인공이 도쿄대학의 교수이자 다카하시의 딸인 가야마 아이코로 바뀌고, 2009년 광명성 2호의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한 북미갈등 등 당시의 국제정세를 직접적 소재로 다루고 있다. ‘20여년 만에 갑작스럽게 제작된 〈내가 본 나라〉 시리즈는 지난 20년간의 세계사적 흐름 즉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진행된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흐름을 북한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영화라 할 수 있다. 〈내가 본 나라〉는 김정일이 파악하는 세계의 정세이자, 그가 북한 대중에게 전달하는 현 시대에 대한 판독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즉, 1부는 일본인의 자기반성적 시각으로 북한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하는 주제와 김일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다면, 2부 이후 후속작은 북한 핵무기, 미사일, 위성 발사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다룬 정치드라마에 가까우며, 북핵을 통해 김정일이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다.

20) 김선아, 「북한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시리즈에 나타난 티모스의 영화미학」, 『영상예술연구』 21호, 영상예술학회, 2012, 100쪽.

〈내가 본 나라〉는 김정일이 영화 제작에 있어서도 강조한 속도전을 실현한 영화이다. 2부부터 5부까지가 2년의 짧은 시간동안 제작된 것이 그렇고²¹⁾, 광명성 2호가 발사된 2009년의 사건을 같은 해에 완성된 영화에 담아낸 속도 또한 그렇다. 이러한 속도전은 김정일이 이 영화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의 모든 업적을 지니고 있던 김일성의 사망 후 최고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일은 최고지도자로서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보여줄 가시적인 성과물, 즉 업적이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선전이 될 만한 결과물을 사회 전 구성원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성공이었다. 이에 북한 당국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최고지도자의 성과물인 핵과 미사일을 결부시켜 대내외적으로 선전하였다.”²²⁾ 정권이양기와 체제 개선 시도를 지나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공고화하던 2009년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김정일이 내세울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서 북한의 핵 담론을 담은 영화 제작에 몰두했음을 엿볼 수 있다. 선전선동수단인 영화와 핵을 결부시켜 대중에게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이 영화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비롯된다. 2부에서 아이꼬가 대학에서 강연하는 내용은 북한의 민족자결권의 정당화이다. ‘약소국이자 ‘불량 국가’인 북한의 핵개발은 강대국의 침공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아이꼬를 국제정치학 교수로 설정한 것도 다분히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포석이며, 아이

21) 〈내가 본 나라〉 2부와 3부는 약 보름 만에 각본을 완성하고, 27일 만에 촬영을 마쳤으며 속도전의 모범으로 선전되었다.

22) 한승호·고경민, 「북한 영화 속 ‘핵’의 콘텍스트: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분석」, 『통일인문학』 65호,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440쪽.

꼬의 강연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당시 북한이 파악하는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가장 위협을 느낀 건 자신들이 이라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²³⁾ 영화의 강연 내용에서 이라크전이 인용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북한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무장하지 않으면 이라크처럼 미국의 침공을 받아 국가가 존립하기 어렵기에 민족자결권을 위해 핵무기를 지니는 것이 정당하며, ‘제국주의의 위협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건 김정일의 선군정치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처럼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위해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강대국 미국이 등장하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그 근거로 인용된다. 이를 위해 영화는 이라크전 영상을 통해 침략자 미국의 이미지를 등장시키며, 그 이라크전 미군의 영상 위로 “북조선이 제2의 이라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 “머지않아 조선이라는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과 같은 아이꼬의 내레이션을 덧입힌다.



〈그림 5〉 〈내가 본 나라〉 이라크전 영상 〈그림 6〉 〈내가 본 나라〉 이라크전 영상

이처럼 이 영화의 적대자는 미국이다. 영화의 배경이 일본이고 주요 등장인물이 일본인이며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남한의 정보 요원들이 등장하

23) 김선아, 「북한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시리즈에 나타난 티모스의 영화미학」, 『영상예술연구』 21호, 영상예술학회, 2012, 104쪽.

기도 하지만, 영화의 선역은 북한, 악역은 미국으로 설정되는 독특한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다만 아이꼬와 미노루 등이 북한과 동일시되는 것에 반해 영화에서 캐릭터로서 구체화되는 미국의 표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영화가 배경으로 하는 세계금융위기, 6자 회담, 북한 제재, 핵무기 등의 직접적인 현재 정세에 대한 언급과 분석을 통해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는 적대적 존재로서 분명히 위치한다.

그에 반해 일본은 미국의 하수인 정도로 그려진다. 시게노리가 일본 우익 국회의원인 하세가와에게 ‘언제까지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에게 청탁과 구걸로 살아야 합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은 미국에 대한 일본 외교의 저자세를 비난하고, 북한의 근원적 적은 일본이 아닌 미국임을 강조한다. 영화적 서사 구조에서는 아이꼬와 시게노리, 하세가와가 대립하는 구도를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지배하는 북한과 미국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이 적대적 관계에 놓이는 것에 반해 이처럼 영화에서 일본과 미국을 묘사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점 등은 하세가와를 비롯한 일본의 정치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그와 더불어 선량한 시민들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기도 하다. 물론, 여기서의 ‘선량함’은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뜻한다. 북한의 체제와 김일성, 김정일을 신봉하는 아이꼬와 다카하시를 비롯해 북한에 대한 아이꼬의 시각이 객관적이기에 존경한다는 대학생들,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조선이 언제 거짓말을 한 적 있어?’라며 위성 발사라는 북한의 말을 신뢰하지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식당에서 대화하는 일본인 등 영화는 일본인을 다양한 개인 군상으로 그린다. 2부에서 안타고니스트의 역할을 하는 시게노리 또한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자신의 신념에 갈

등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와는 달리 미국의 표상은 단일하게 묘사된다. 때문에 여러 군상을 등장시키지도 않고, 다면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캐릭터로 그려 지지도 않는다. 영화에서 미국은 국가와 동일시되는 대통령, 국회, UN회의 장면 등의 기록과 자료화면으로 대체된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과 미국의 위협을 주장하는 내용들에 해당 자료화면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영상이 구성되는 것이다. 2부의 마지막 부분이자 영화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퀀스에서 아이꼬가 현재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위협 당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영상 구성의 의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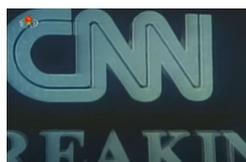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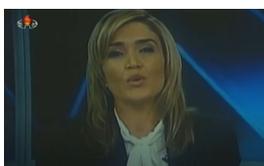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영화가 재구성한 역사적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00년 미 국무장관 올브라이트가 북한을 방문하고(그림7), 회담을 통해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지만(그림8), 부시가 재선되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북미기본합의문을 일반적으로 파기한다(그림9).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회의 및 UN안보리 이사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높이고(그림10), 미 의회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 공세를 선포하고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포함시킨다(그림11). 북한은 자주권을 위해 NPT 탈퇴를 선언하고 이에 전쟁의 위협이, 영화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 공격 위협이, 고조된다. 이는 CNN 등 미국 뉴스 화면을 통해 전달된다(그림12,13). 미국의 군사력(그림14)과 국제 사회에서의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이 고립되는 이미지, 미국으로부터 위협 당하는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만들어낸다.

이전의 북한영화들에서도 전쟁과 국제 회담 등을 담은 자료화면은 종종 사용되어 왔으나 미국 뉴스를 직접 영화에 등장시키는 것은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이다. 2부부터 5부까지 미국 뉴스 장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온다. 미국 뉴스화면의 사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이 영화가 타자인 일본인을 통해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일본인의 자기반성적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목적을 지닌 것처럼, 뉴스라는 객관성을 지닌 매체를 이용해 미국 내에서도 북한을 향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선전을 하는 것이다. 영화에서 사용되는 미국 뉴스는 실제 내용과 다르게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을 담은 내용이 더빙되어 있으며, 그 사실과 상관없이 미국 뉴스라는 객관적 환경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메시지화 한다. 두 번째는, CNN 속보와 같은 화면의 사용이 실시간으로서의 상황의 다급함을 전달하는 극적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감을 전달하는데 효과를 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동시간대의 정세를 영화에 담아 대중에게 선전하고자 목적과 부합한다.

적대세력은 6자회담을 통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국방공업을 질식시켜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 1990년대에 우리는 이미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것은 곧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²⁴⁾

영화가 주장하는 내용은 위의 북한 당국의 성명과 일치한다. 대부분의 북한영화가 국가의 지배 아래 놓이지만 이 영화는 당대의 북한 지도부가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공식 입장과 같다. 이 과정에서 ‘영화 <내가 본 나라>는 제국주의라는 적을 재생산’²⁵⁾하는데, 이는 직접적 이미지로서의 표상이 아닌 배경으로서 정세 안에서 구축된다. 구체화된 캐릭터가 아닌 자료화면과 뉴스 화면 중심의 미국 표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4. 자기 결함을 감추기 위한 악의 설정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선군영화가 강조되었던 것에 반해 2000년대 후반에는 경제문제를 다루며 국가건설을 지도하는 영화들이 다수 제작되었다. 경제 소재 영화는 미국 표상과 큰 연관성을 지니지 않을 것 같지만, 당시 북한의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이 영화들에서도 미국이 적대적 표상으로 등장하는 영화들이 존재한다.

24)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29일.

25) 한승호·고경민, 「북한 영화 속 ‘핵’의 콘텍스트: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분석」, 『통일인문학』 65호,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447쪽.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극도의 경제난을 겪었다. 2000년대 후반에 이 고난의 행군을 다루는 영화들이 등장했는데, 북한은 그 고난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발견하려 했다. 북한은 1998년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했지만, 그렇다고 2000년대에 들어 경제상황이 반등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식량난과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한 상태였으며, 오랜 기간 이어지는 경제적 어려움에 당과 지도부를 향한 민중의 불만이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외부의 적을 통해 적개심 고취와 그에 따른 내부 결속을 유도하였으며, 그 적은 당연히 미국으로 설정되었다. 다만 군과 전쟁을 통해 적대자 미국을 소환하는 것 뿐 아니라 북한 민중이 경험한 경제난이 미국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선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결함을 감추고 미국이 실제 민중의 삶을 핍박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최고지도자 김정일을 향한 찬양의 주제와도 연결된다. 어려운 시기를 추억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며, 영화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를 김정일의 지도력으로 연결 짓는다. 마치 북한영화가 과거의 ‘항일혁명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을 지속적으로 재생하며, 그러한 과거의 고난에서 구원해준 현재의 지도자와 체제에 감사히 여기도록 재차 각인시키는 것과 같다. 과거의 고난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고, 지속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 및 적개심을 고취함으로써 정권의 안정적인 유지 및 세습과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다.’²⁶⁾ 전쟁에 버금가는 경제적 위기는 오히려 현 상황에 대한 선전 수단이 된다. 이러한 선전을 위해 미국은 관습적으로 그러한 위기를 만든 적대자로 위치한다.

〈자강도 사람들〉(2000)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한 1998년

26) 안지영,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44쪽.

직후 만들어진 영화로서 북한영화 중 드물게 직접적으로 ‘고난의 행군’ 문제를 다루는 영화이다. 이 영화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당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위해 고난의 행군의 원인과 결과를 영화를 통해 재구성하고 그 집단적 기억을 재조정한다.’²⁷⁾ 그 원인은 외부의 적인 제국주의에 있었다고 강조된다. 영화는 삼림자원을 팔아 외국으로 파는 수송 트럭을 탈취하고, 나무 자재를 외국으로 팔라는 ‘매국노’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 등을 통해 북한 경제난의 원인이 외부의 적에 있음을 주장한다.

“전기가 없어서 저렇게 열차도 멎어 있는데 제국주의 반동들은 이 머리 위에 나부끼는 이 붉은 기를 내려오려고 미쳐 날뛰면서 사회주의 조선의 도락은 시간문제라고 악에 바쳐 떠들면서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몹쓸 놈들!”

“그럼, 원수들과의 사상 전쟁, 의지 전쟁에 나선 우리가 이 난관 앞에서 주저앉아야 옳겠는가?”

“그럴 순 없소!”

원자재를 외국으로 팔라는 브로커의 제안을 거절한 후의 연설 내용을 보면 당시의 경제난, 고난의 행군의 원인을 반제국주의 사상과 연결 짓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제난의 원인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은 반대로 그 원인이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령과 당의 지도에는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경제난을 겪게 된 것은 순전히 ‘제국주의의 고립압살책동’에 의한 것이었다는 면죄부를 얻고 김정일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효과”²⁸⁾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27) 전영선·권정기, 「집단적 치유와 제의로서 북한영화: 〈자강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13, 223쪽.

영화에 미국은 이미지로 등장하지 않지만, 경제난을 만든 원인으로서 그 배경으로서 악의 표상으로 이용된다.

전력설비를 소재로 하는 <생명선>(2009)에서도 미국을 악인으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동일한 기초가 읽힌다. 영화는 초고전력설비를 수입하기 위해 외국기업과 협상하지만 계약이 파기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해당 설비가 북한에 들어오게 되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계약을 파기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다. 이 영화에서도 미국은 직접적 이미지로 등장하지 않지만 위기를 만든 원인으로 미국의 상징적 표상이 사용된다. 이와 같은 경제 소재 혹은 경제난을 다루는 영화에서 영화의 핵심적 위기 요인인 경제난을 만든 긴장 조성의 배경으로서 적대자 미국이 다시금 호명되는 것이다. 또한 이 영화에서도 “미제국주의의 고립압살 책동과 제 구실을 못한 일꾼들이 문제로 거론될 뿐 당 정책과 구조적 결함에 대한 고민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²⁹⁾ 지도자나 당의 결함을 감추는 장치로서 관습적으로 적대시 되는 대상인 미국이 영화에 이용되는 것이다.

경제난을 상황으로 다루는 북한영화들에서 미국은 하나의 ‘배경’으로 존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경이란 지금의 힘겨운 상황을 만든 ‘원인’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또한 현재도 북한의 경제를 방해하는 존재로서 위기와 이야기의 긴장을 만드는 배경을 뜻하기도 한다. 배경으로서의 악인이기에 영화에 직접적 표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경제난과 위기를 만드는 존재로서 투쟁의 대상으로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고난의 행

28) 안지영,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56쪽.

29) 안지영,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81쪽.

군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민중이 직접 체험한 트라우마적 기억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원인으로 제국주의, 미국이 상징될 때 직접적 표상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고양되었을 것이다. 이는 당의 정책적 결함을 감추기 위해 설정된 일종의 절대악으로 미국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기에 당 지도부의 책임회피를 목적이자 선전 수단으로 미국이 과거부터 이어진 관습적 악으로 대상화되는 것이라 읽을 수 있다.

5. 나오며

김정일 체제기는 체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기였다. 김일성의 죽음으로 후계자 김정일은 정권을 안정적으로 세습하고 유지해야 할 과제가 있었지만, 1990년대 중후반 북한 사회는 북핵 위기와 가뭄과 홍수, 이로부터 이어지는 대북제재와 극심한 경제난을 마주해야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영화가 미국을 표상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발견된다. 1990년대 이전의 북한영화들에서 마치 하나의 약속된 장르처럼 미국을 폭력성이 강조된 극악무도한 캐릭터로 만들어 직접적으로 악인의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적개심을 고양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시기 영화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수령형상화에 집중하며 미국 표상은 수령형상화를 위한 장치로 소모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 체제 결속을 위한 선전 목적이라도 이 시기 영화들에서는 다른 방향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미국이라는 외부의 적을 통해 내부를 결속한다는 목적보다는 김정일이라는 지도자의 위대함을 강조함으로써 민중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위기를 만든 원흉으로서 미국이, 과거부터 이어진

제국주의의 적이 호명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 여러 북한영화들에서 미국의 표상은 직접적인 이미지로의 표현은 약화되고 그것이 군사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문제와 위기를 만든 원흉으로 배경에 위치한다. 물론 그 표현 방식이 직접적이지 않다고 해서 본질적 의미가 변화하지는 않으며, 미국은 북한영화에서 적대적 존재로 표상된다. 이처럼 북한영화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할 때 미국을 적대자가 아닌 다른 의미와 연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인다.

그로 인해 북한영화에서 미국 표상은 일정 수준의 일률적 의미를 지닌 편견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폐쇄된 사회임은 분명하지만 북한 사회에도 어느 정도의 개방에 대한 의지와 움직임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이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을 다루기에 전쟁영화 등을 주된 사례로 다루기는 하였지만, 김정일 체제기에 주목받는 영화 중 하나는 북한의 새로운 세대를 다루는 영화들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청년이 “이데올로기와 체제 선전의 전위대로 활용”³⁰⁾ 되기에 세대 문제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과 비교해 이 시기 북한영화에서 다루는 청년은 이전 시대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세대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지점들을 놓치고 보면, 북한영화와 적대적이지 않은 미국 표상을 연결할 수 없게 된다.

이들테면, <한 녀학생의 일기>(2006)의 첫 장면은 미키 마우스 책가방을 맨 아이를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영화의 첫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미키 마우스로 시작되며 이 컷은 10초가량 이어진다. 이 미키 마우스는 기존 북한영화에서 고착화된 적대적 미국 표상으로는 이해가 어렵기에

30)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의 청년세대: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4권 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5, 35쪽.

관객은 이 장면과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된 미국 표상에 있어 해석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림 15〉 〈한 녀학생의 일기〉

특히 관객은 영화의 첫 장면을 보고 의아해하는데, 커다란 책가방 위에 수놓인 미키 마우스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내내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문화의 대표적 상징인 미키 마우스를 체재 개방을 향한 북한의 의지로 읽어야 하는가? 반대로 서양전형의 물질적 인락을 추구하는 한 여학생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리려고 한 건가? 아니면 별다른 뜻이 없는 유머 중 하나인가?³¹⁾

하지만 미키 마우스 가방은 이미 북한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으로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²⁾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을 적개

31) 아드리앙 공보, 〈[외신기자클럽]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영화〉, 조수미 역, 『씨네21』 638호, 2008.

32) “최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인이 찍은 북한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중략) 이 중 한 여학생의 책가방이 눈에 띕니다. 분홍색 가방에 그려진 귀여운 쥐 모양의 그림은 미국의 대표적인 만화 주인공인 ‘미키 마우스’입니다. (중략) 이 책가방은 여느 물건과 같이 북한의 장마당에서 구입한 중국산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 가운데에는 이 같이 미국을 상징하는 ‘미키 마우스’나 ‘나이키’ 제품을 모방한 물건이 많고 북한 사람들이 별다른 의도 없이 장마당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노

십이라는 일률적 표상으로 이해하면 이 장면은 다른 의도로 해석되어야만 하지만, 이는 적확하지 않은 관습적 해석에 그치게 된다. 북한 지도부는 끊임없이 반미반제 사상을 대중에게 주입하고 선전하지만, 이 사례처럼 북한 사회가 불가피하게 개방되는 과정들에서 미국의 상징이나 이미지가 영화나 미디어, 혹은 생활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북한 대중들이 미국에 대해 익숙해진 부분들이 존재할 것이다. 세대의 변화 과정에서 미국 표상을 이해하는 방식 또한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김정일 체제기를 지나 김정은 집권기에 이르러 더욱 강화됐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김일성 체제기에는 6·25전쟁에서 비롯되는 반미사상을 선전하였고, 김정일 체제기까지만 해도 핵으로 인한 북미 갈등이 극화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북핵 문제도 국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변수로 이해되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김정일 체제기의 북한영화에서는 이전 시대의 영화들부터 이어지는, 적개심이라는 미국의 근원적 표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외적 표현 방식에 차이가 발생한 것과는 달리, 김정은 집권기로 넘어가면서는 영화를 비롯한 매체에 사용되는 미국의 표상이 지니는 의미 자체가 다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반대로, 마치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북한 표상이 냉전 시대나 중동 테러리스트처럼 액션영화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으로 단선적으로 묘사되던 것에서 <디 인터뷰 The Interview>(2014)처럼 북한이나 김정은을 코믹한 이미지로 소비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현상 등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후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영화의 미국 표상은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민, <‘미키 마우스’ 가방 북한 소녀 눈길>, 『자유아시아방송』, 2010년 9월 15일.
(검색일: 2022. 8. 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mickey_mouth-09152010160224.html)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태우, 『북한사 다이제스트100』, 가람기획, 2015.
-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한울, 2010.
- 이명자, 『북한영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우리 당의 선군정치』,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Johannes Schönherr, *North Korean Cinema: A history*, McFarland & Company, 2012.

2. 논문

- 김선아, 「북한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시리즈에 나타난 티모스의 영화미학」, 『영상예술연구』 21호, 영상예술학회, 2012.
- 민병욱, 「김정일 체제기 북한 예술영화 연구」, 『공연문화연구』 13호, 한국공연문화학회, 2006.
- 안지영,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이현중, 「1960년대 북한영화 속 미국 표상 연구」, 『영화연구』 87호, 한국영화학회, 2021.
- 전영선, 「이야기 방식을 통한 북한 체제 정당화 연구: 총서 “불멸의 력사”와 영화 <조선의 별>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3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09.
- 전영선·권정기, 「집단적 치유와 제의로서 북한영화: <자강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13.
- 정영권, 「2000년대 초반 북한 영화의 청년세대: 청년 과학자와 ‘청년동맹’ 형상화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4권 1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5.
- 한승호·고경민, 「북한 영화 속 ‘핵’의 콘텍스트: 조선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 분석」, 『통일인문학』 65호,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3. 기사 및 기타

『로동신문』, 2005년 9월 19일.

『조선중앙통신』, 2009년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 2009년 7월 27일.

노정민, 〈'미키 마우스' 가방 북한 소녀 눈길〉, 『자유아시아방송』, 2010년 9월 15일.

(검색일: 2022. 8. 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mickey_mouth-09152010160224.html

아드리앙 공보, 〈[외신기자클럽]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영화〉, 조수미 역, 『씨네21』 638호,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the US in North-Korean Films (1994~2010, the period of Kim Jong-il Regime)

Lee, Hyun-Joong(Kunsan National University)

In the 1990s, North Korea faced a crisis at home and abroad. North Korea was isolated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e to the fall of Eastern socialism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 death of Kim Il-sung in 1994 became a crisis for the North Korean regime. Successor Kim Jong-il induced unity of the regime, but the "Arduous March" came due to food shortages caused by floods and drought. The North Korea-U.S. relations and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strain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resulting international sanctions have intensified economic difficulties. This situation was reflected in North Korean films. North Korea produced a military-first film as a propaganda tool to overcome this situa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military-first films, the past "great fatherland liberation war" was summoned, and the military's hostile representation was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US representation of North Korean films at the time and confirm the direc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at the time through cinematic propaganda.

During this period, changes are found in the way North Korean films represent the US. Before the 1990s, the way North Korean films expressed the US was to create an image of a villain directly through characters emphasizing violence.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films during this period tend to use the U.S. as a device to praise Kim Jong-il and to unite the inside. In the process, the US is set as the cause of the current crisis. For that reason, in North Korean films of this period, the representation of the US serves as an evil located in the background, rather than being expressed

as a direct image. Even in war movies, the US is exposed as a material screen rather than directly appearing as a character. Even in movies dealing with economic difficulties, the US exists as a cause of hardship, but it is not used as a device to directly intervene in the narrative between characters.

Therefore, although the purpose of propaganda for system unity is the same, in North Korean films of this period, the representation of the U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 different meaning. This is not the purpose of uniting the inside through the external enemy of the US as in the past. By promoting a new leader Kim Jong-il, it is intended to induce internal solidarity and educate the public. As a device for this purpose, the tendency of the US to be consumed conventionally can be found through the cinematic representation.

(Keywords: North Korean films, North Korean, representation of the US, Kim Jong-il, Songun(military-first) films, North Korean Nuclear, Korean War, *The Country I Saw*)

논문투고일 2022년 09월 26일

논문심사일 2022년 10월 1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11일